

온누리상품권 개편...전남광주 전통시장 혜택 확대

전통시장 구매 5% 할인+5% 환급...골목상권은 최대 8%

재정자립도에 골목형상점가 기준 차등...지역 상권 문턱 ↓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18년 만에 전면 개편되면서 전남광주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소비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구매할인과 소비환급을 합쳐 최대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방 골목상권에는 최대 8%의 혜택이 제공된다. 지방의 상권 여건을 반영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단순한 할

인 수단을 넘어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으로 소비를 유입하고 지역 관광과 연계해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어느 지역에서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구매할인 혜택이 적용돼 사용처에 따른 차등 혜택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구매 단계에서 5% 할인받고 사용 후 5%를 환급받아 총 10%의 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구매 시 5% 할인

에 사용 후 3% 환급을 더해 총 8%의 혜택이 제공된다.

전남광주지역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방에 보다 유리하도록 바뀐다.

현재는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밀집지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정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재정자립도 상위 25% 지방자치단체는 30% 이상, 중위 50%는 20% 이상, 하위 25%는 15%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경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나눈다. 인구감소지역은 시장 반경 1km 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전남광주지역처럼 지역별 상권 규모와 지정 여건이 다른 곳에서는 이 같은 기준 차등화가 골목상권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반을 넓히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상품권의 지원 대상도 중소·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정비된다.

중기부는 올해 6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의원과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가맹을 제한하고 있다. 약국은 전통시장과 상권 내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가맹을 허용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해서도 가맹점 등록 및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 관광과 연계한 소비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할인·환급 혜택에 더해 지역 명소 입

장권과 숙박권, 지역쇼핑몰 할인쿠폰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연계를 강화한다.

전통시장과 인근 관광지, 골목상권을 묶은 지방 여행상품 개발도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별도의 환전이나 카드 발급 없이 기존 결제 앱을 활용해 전통시장에서 QR 결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지도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독재널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고객 응대와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촉진 행사도 지원해 온라인 주문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로 연결한다는 계

획이다.

카드 포인트와 공공기관 복지포인트 등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편은 소비자의 혜택을 사용처에 따라 달리 적용해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하고, 관광·온라인 플랫폼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기부는 우선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정비에 착수하고 온누리상품권 차등환급과 지방관광 연계, 민간 플랫폼 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가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삼성 ‘갤럭시 탭 S12 시리즈’ 공개...7일 출시

안드로이드 태블릿 최초 포토샵 탑재...첫 클립형 이어폰

삼성전자가 1일 강력한 성능과 최신 갤럭시 AI를 탑재한 프리미엄 태블릿 ‘갤럭시 탭 S12 시리즈’와 갤럭시 최초의 클립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 분실 방지 기기 ‘갤럭시 스마트테그3’ 등 신제품을 공개했다.

새롭게 선보인 ‘갤럭시 탭 S12 시리즈’는 최대 23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 대화면에 최적화된 최신 갤럭시 AI, 안드로이드 태블릿 최초 어도비 포토샵 탑재 등을 통해 생산성을 한층 높였다.

‘갤럭시 탭 S12 울트라’는 5.1mm의 얇은 두께와 14.6형 대화면에 강력한 성능까지 갖춘 제품으로 복잡한 작업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갤럭시 탭 S12+’는 전작 탭 S10+보다 얇고 가벼워진 디자인에 12.6형의 더 넓어진 화면을 적용했다. 두 모델 모두 S펜을 기본 제공해 필기와 드로잉 등 다양한 작업을 지원한다.

‘갤럭시 탭 S12 울트라’는 한 번의 충전으로 동영상 재생 기준 최대 23시간, ‘갤럭시 탭 S12+’는 최대 21시간 사용할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해 약 95분 만에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다.

‘갤럭시 탭 S12 시리즈’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최초로 ‘어도비 포토샵’이 기본 탑재된다. 태블릿 화면과 S펜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드로잉과 이미지 편집 등 창작 작업을 지원한다. 사용자는 어도비 포토샵 모바일 프리미엄을 4개월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갤럭시 탭 S12 시리즈’는 오는 7일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독일, 인도, 일본 등에 출시한다.

갤럭시 최초의 클립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도 오는 27일 출시한다. 클립형 이어폰은 귀를 막지 않아 장시간 착용해도 귀에 부담이 적고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경총·조선대, 기업 노무 대응 역량 높인다

‘G-HR 미래인재포럼’ 개최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점검

현장 쟁점·실무적 혼란 초점

광주경영자총협회와 조선대학교 앵커사업단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기업의 법적·실무적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1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조선대 앵커사업단과 공동으로 최근 광남일보 아카데미홀에서 ‘G-HR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지역 기업 최고경영자와 임직원, 인사·노무 관리자 등 50명이 참석했으며,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주요 현장 쟁점 분석과 기업의 법적·실무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G-HR 미래인재포럼은 지역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대학 간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조선대 앵커사업단은 기업 현장에서 인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담당자와 대학이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지역 인재 양성과 기업의 인력 확보가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포럼을 노동 현장 교육으로 구성했다.

교육은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 6개월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조선대 앵커사업단과 공동으로 광남일보 아카데미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주요 현장 쟁점 분석과 기업의 법적·실무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G-HR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했다.

을 맞아 현장의 쟁점과 실무적 혼란을 점검하고 회원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사로 나선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판결·분쟁 동향, 기업 대응 방안, 실전 대응 절차 등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점과 노조 가입 요건 완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으로 노동쟁의 대상을 넓힌 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변화로 제시했다. 특히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도급비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업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짚었다.

관련 분쟁 현황도 공유됐다. 지난달 17일 기준 교섭단위 분리 사건은 204건이 접수돼 31건이 인용되고 61건이 기각됐다.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사건은 397건이 접수돼 202건이 인용되고 26건이 기각됐으며, 행정소송은 15건이 접수된 상태다. 파업 등 집단적 노사갈등에 대응할 때

고려해야 할 대체근로 금지 규정도 다뤘다. 김 변호사는 원청 소속 직원 투입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지만, 협력사 인력이나 외부 인력을 투입하려면 엄격한 법률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광주경총의 기업 네트워크와 조선대의 교육·인재양성 역량을 G-CEO·G-HR 포럼으로 연결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취업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남일보·해피니스CC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2026.10.12(월)~11.16(월)

해피니스CC(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 대회일정

예선 : 2026.10.12~11.09(매주 월요일) 07:00 티업
본선 : 2026.11.16(월) 07:20 티업
- 경기방식

신페리오 방식
대중제코스(하트, 히트, 힐링), 18홀 샷건
남성(화이트티), 여성(레이디티)
- 참가대상

만 20세 이상 남·여 순수 아마추어 골퍼
- 참가접수

해피니스C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 참가비

30,000원 / 본선 : 50,000원
(중식+홀인원 보험료 포함)/ 입금 확인 시 참가 확정
- 입장료

회원 : 55,000원(카트비, 기본요금 별도)
비회원 : 115,000원(카트비, 기본요금 별도)
대회 7일 전 취소 가능하며 이후 취소는 참가비 전액 반환 불가
(단, 본선은 5일 전 까지 가능)
- 납부방법

접수 후 참가비 입금, 입장료는 현장 결제
(광주은행 001-127-012075,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문의 예약실 061)330-5001~4
경기팀 061)330-5021~2

*위 내용은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경우로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피니스CC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